

# 전제에 대한 의심

전 철 \*

2004년 10월 6일

## 1

오늘 논문에 관련한 독서를 하면서 발견한 점인데, 화이트헤드의 초기 프로젝트에서는 ‘정신’과 ‘자연’이라는 이 양자의 관계를 더 설명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이 전제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정신과 자연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이 둘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고찰하는 태도와는 달리 화이트헤드는 이 둘을 하나의 근원적인 체계에서 적절하게 공식화 할 수 있는 더 근원적인 자연철학적 작업을 구상한다.

몇 년 전 어느 날 화이트헤드의 글에서 잠시 느낀 인상적인 아우라는 이것이였다. 그가 그려내는 형이상학적 서술과 그를 통하여 전개되는 세계에 특별한 전제로 기능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는 분명히 나름대로 자신의 전제와 도식들을 주장 한다. 이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즉 보통 어떠한 서술이든간에 그것은 주체의 시각과 입장, 그리고 주체의 존재론 혹은 인간론적 근거인 인간의 경험범주에 대한 전제와 견해가 거기에는 연결되어 있다.

## 2

물론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기술은 철저하게 관찰자적이지만, 그러나 그의 형이상학이 그려내는 설명체계 내에서는 주체의 중심성 내지는 인간론적 전제가 특별히 고려되지 않아 보인다. 매트릭스의 영화가 의미하는 바를 빗대어 이해해 보자면, 주체에 있어서 이 세계는 소위 매트릭스의 세계이며 그러한 세계를 구성하는 자질구레한 모든 코드들을 분해해버리고 더 나아가 자아와 의식이라는 경험의 영역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해체해 버리는 입장에 화이트헤드는 서 있다는 것이다.

마음의 내부와 외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현실적인 의미체계를 형성하는

---

\*전철의 신학동네 <http://theology.co.kr>

여타의 중요한 전제들을 전제로 놓지 않고 그 근원을 다시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도 형이상학적 전제가 아니라 그의 사변을 통하여 예증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입장의 차이이다.

내가 느끼는 몸과 마음은 말하자면 허상이지만 그것은 이 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로서 인코딩 되어 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생성되고 존속되어 가는가를 질문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디코드 해버린다. 그것은 말하자면 몸과 마음도 이 세계에 하나의 전제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태도이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어떻게, 그리고 왜 나는 나를 세계의 중심으로 느끼는가”라는 물음을 갖았다. 사실 이러한 물음은 나의 경험과 현실에서 의심 없이 전제되고 있는 주체의 중심성에 대한 회의가 담겨있는 물음이다. 바로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중심성으로서의 나, 정신과 자연의 경험이 어떠한 원리를 바탕으로 코덱싱 되는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전제들을 자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의 체계로 주도면밀하게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해 버린다.

이렇게 정신과 자연이라는 막강한 전제로 기능하는 이 양자의 도식을 해체시키면서 그를 포괄하는 자연적 관계를 공식화 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아주 작을 수 있다고 화이트헤드는 강조하기도 한다.

### 3

전제라고 하는 것은 체계 내에서 설명불가능한 것들을 일단 괄호로 친 대상들이다. 그러므로 전제는 언젠가는 설명될 수도 있으며, 바로 전제를 설명할 때에 그 가설과 공식은 더욱 성공적인 설명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제, 체계, 자연적 관계, 그리고 언어에 갖힌 것들을 해방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화이트헤드는 후기에 가서 언어와 명제의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를 진행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부분인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화이트헤드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찰과 익살이 담겨 있는 표현을 읽은 것 같다. 기억을 헤아리면서 옮겨본다면 아마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천재들이 발견한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의는 그들의 전제와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전제에 대한 의심, 이것은 과격하거나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제를 애정 있게 다시금 곱씹어 고려하고, 그를 무덤에서부터 다시 생생하게 우리의 삶과 언어로 복원하려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